

자연·역사·문화를 품은 공원...가장 유리한 조건 갖췄다

광주 서구 중앙근린공원 1호 국가 도시공원 추진

광주시 서구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1호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자연과 역사, 문화를 품은 중앙근린공원이 도시 공원지정에 나선 타 지자체의 공원보다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보다 뛰어난 경쟁력 = 광주시 서구 중앙근린공원(공원 면적 279만 6446㎡)이 전국 최초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데 손색이 없다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전국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지자체는 광주시 이외에도 인천, 대구, 부산 등이 있다.

이들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원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남동구 소재 습지 생태공원, 대구는 달서구 두류공원, 부산은 사하구 을숙도 생태공원과 맥도 생태공원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인천과 부산의 경우 면적조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충족해야 할 소유권에 문제가 있었다. 이는 곧 광주 중앙근린공원의 강점으로 작용한다.

중앙근린공원 부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모든 부지가 지자체 소유가 된다.

부산시와 인천시가 각각 낙동강하구 을숙도 생태공원(304만㎡)·부산강서구 맥도 생태공원(258만㎡), 인천소래습지(6.65km)을 국가공원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유지가 다수 포함돼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165만㎡)로 면적 요건이 완화에 따라 강력한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경쟁상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광주 중앙근린공원의 경우 자연을 품은 생태공원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공간까지 품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중앙근린공원에 있는 중앙호수공원을 품고 있어 시민들의 활용성도 좋고 과거 군사교육 시설인 상무대가 있었던 만큼,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짓밟혔던 아픈 역사를 기리는 역사공원도 포함하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다만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와 시민사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되면 = 중앙근린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광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후 온난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된 광주시의

모든 부지 지자체 소유·면적 충분

중앙호수공원 시민 활용성 좋고

상무대, 5·18의 아픈 역사 기려

폭염 일상화된 도심 기온도 낮춰

국가공원 지정 땀 브랜드가치 상승

무등산 지질공원과 함께 국제적 위상

주변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것

도심 온도를 낮추는데도 한 몫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당장 국비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자연환경과 녹지 인프라가 제공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에 이어 국가도시공원까지 지정되면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하게 되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최초 도시가 되고, 명실상부한 공원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국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아 여름철이면 열기가 갇힌 채 빠져 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민간공원과 재정공원 24개 공원을 조성중에 있는 상황에서 2027년 각 공원이 완성되면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6.3㎡에서 12.3㎡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가치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원에서 국가공원박람회와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 등이 개최될 경우 문화적 혜택은 물론 이용객 증가로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도.

광주시는 높아진 도시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중앙공원은 중앙호수를 중심으로 어울림숲 등 6개 숲의 테마로 조성되며, 각 테마에 맞게 무등산 조망데크, 아시아청년문화숲, 아시아청년언덕, 도심형 캠핑장, 수변파빌리온, 물놀이장, 장미원 등 대규모 공원이 조성 중이다.

또, 도보권 내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5900㎡~1만9500㎡ 소형 및 중형 규모의 11개의 마을 숲도 만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일 광주시 서구 중앙동 중앙근린공원 1지구내 어울림(1번)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사라지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개혁입법 속도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외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은 전날부터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전날 오후부터 국민의힘 요구로 진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총 24시간 12분 진행)를 이날 오후 4시 13분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로 중단시켰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

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이사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면서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8·15 광복절에 개최 '국민임명식'에 전 대통령·전 대통령의 배우자 초청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국민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우상호 정부

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보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

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옥 정부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임명식에 최북단 지역인 강원 고성군민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행사 당일 평화 관련 메시지를 낼지를 묻자 "평화 관련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답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 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